인건비 지원 불가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 자체 채용 철회키로

광주 6개교 '위탁 채용' 선회
시 교육청 평가 '하위권'
운영 불이익 해결 '고육책'
사학법인 공공성 강화 주목

광주 6개 사립학교 법인이 시 교육청이 권고하는 신규 교사 위탁채용에 불응하고 자체 채용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했다.

교육청의 신규 교사 인건비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이들 사학법인들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사학법인들이 시 교육청 평가서 하위권에 속해 있어 학교 운영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려고(고려학원), 경신여고(춘광학원), 동신여고(동강학원), 대동고(우성학원), 서석고(우당학원), 대성여고(우산학원)를 운영하는 법인들은 애초 11월 21일 신규 교사 21명을 자체 출제한 지필고사 등을 통해 뽑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위탁채용을 권고하고, 위탁 채용하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해당 신규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이번에 신규 교사를 별도 채용하려는 6개 사학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6개 사학법인은 최근 자체 채용 계획을 철회하고, 내년에 위탁 채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의 신규 교사 인건비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해당 사학법인들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광주 사립학교 법인 대표 중 몇 몇이 모여 그 법인들만 별도로 교사를 뽑겠다고 나섰지만 신규 교사 인건비 지원 등 학교 재정 운영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한 위탁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비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뜩이나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최상위권 학생 특별 관리 등으로 문제가 된 일부 비리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의 교사 자체 채용을 고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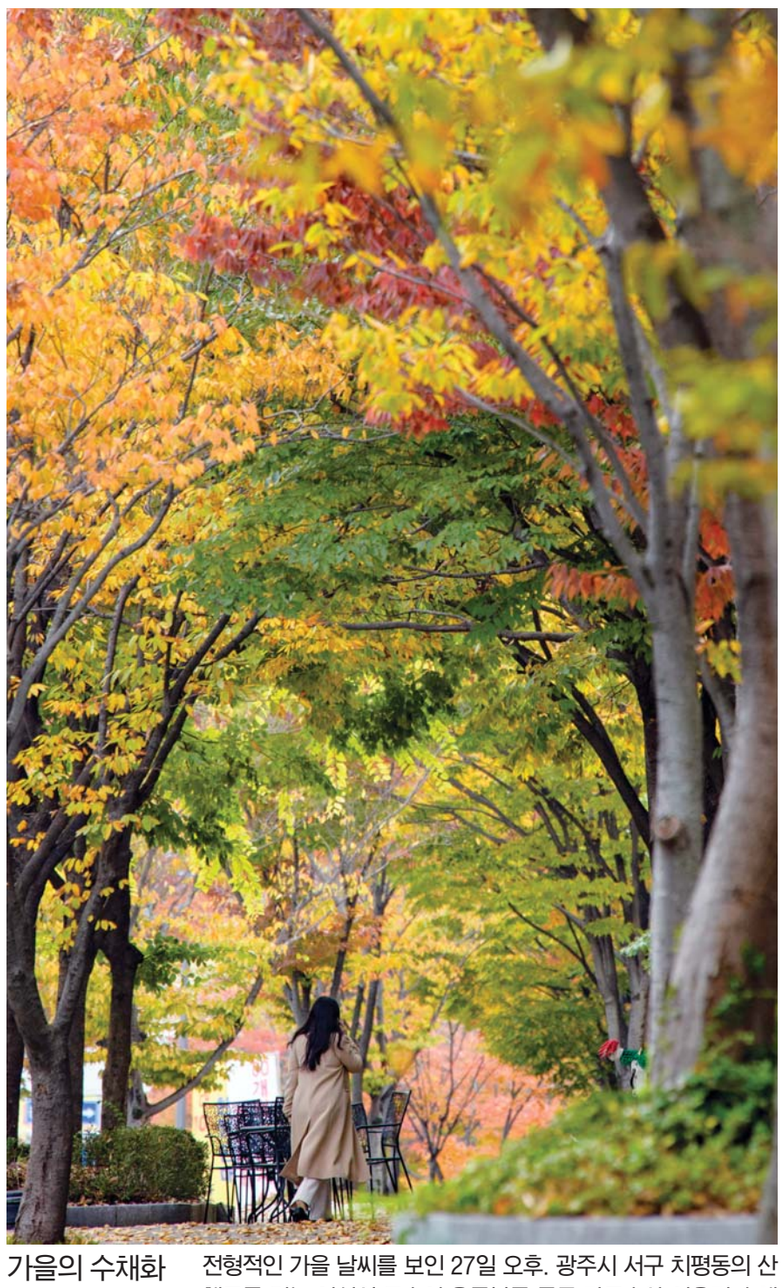
광주지역 31개 사학법인 중 14개 법인이 최우수, 우수, 장려 평가를 받아 법인당 500만~3500만원 예산을 지원받지만 이번 평가 결과 '하위권'에 속해 있는 법인들은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 사학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둔 조치로 실효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 피해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교사 채용 시험의 불공정과 사학재단의 전입금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학법인은 공교육 행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며 "이는 지원 축소 등 결국 교사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학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광주지역 25개 사학법인은 교사 122명을 시 교육청에 위탁 채용하게 됐다. 지난 25일 원서를 마감한 결과 총 1523명이 지원해 1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 교육청 주관으로 오는 11월 21일 지필고사가 실시된다. 해당 사학법인들은 지필고사에서 뽑힌 4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자체 면접을 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가을의 수채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인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산책로를 걷는 여성의 모습이 울긋불긋 물든 가로수와 어울려 수채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행불자 유골 이번엔 발견될까

진상조사위, 암매장지 추정 상무대 인근 천변 조사…주남마을·효천지구도 조사 중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암매장지로 의심되는 5·18당시 전투교육사령부(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현장조사에 나섰다.

27일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날 5·18조사위 조사관은 5·18 행불자를 찾기 위한 광주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날 오후 2시께 5·18진상조사위 조사팀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암매장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해 제보자와 현장을 살펴봤다.

이곳은 주민 김영환씨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암매장을 목격했다〈광주일보 2017년 1월23일 6면〉고 제보한 장소다.

김씨의 목격담에 따르면 1980년 5월 24일 비 오는 새벽 2~4시께 전조등을 켜지 않은 군용트럭(1t 크기 추정)들이 현 극락교 아랫길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씨는 다리 아래에서는 군용 포크레인이 모래밭을 파고 있었고 뭔가를 집어 던지는 듯 둔탁한 소리가 이어진 점을 토대로 당시 '5·18 희생자들을 파묻었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날 5·18진상조사위 조사 1팀 조사관들은 ▲주남마을 민간인 집단 학살 ▲송암동 일대 계엄군 간 오인 교전에 따른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주남마을과 효천지구 일대의 현장도 조사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조사1팀을 중심으로 광주에서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지 등 제보받는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베스트글로벌 대학평가
전남대 거점국립대 2위

美 시사전문지 발표

미국 시사전문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베스트 글로벌 대학평가'에서 전남대학교가 국내 거점국립대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2014~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대학의 국제 및 지역적 연구 평판, 간행물, 논문 피인용, 상위 1% 및 10% 논문 수와 비율, 국제 공동연구 논문 비율 등 13개 지표를 차등 배점해 평가한 결과 전남대는 거점 국립대 가운데 2위, 국내 13위, 세계 664위에 올랐다. /채희종 기자 chae@

수능 당일 KF80 이상 마스크…1주일 전부터 원격수업

전남교육청 방역 대책

전남지역 전체 고등학교가 수능(12월 3일) 1주일 전인 11월27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반드시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남교육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실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 시험실 수를 작년 대비 175실 증가한 793실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확진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일반시험장, 별도시험장, 병원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시험장 방역을 하고, 비말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수험생의 책상에 방역 칸막이를 설치한다.

수험생들은 점심시간에 여럿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수능 방역 TF'를 운영하고 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날 대입 수능 시험장인 무안 남악고교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달라진 시험환경을 점검하고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 시대…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법제화해야"

전교조 범국민 서명 돌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교육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3분의 1·3분의 2 등교라는 방식으로,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 학교 교육이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광주지부는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와 감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이날 전남도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수 1000명이 넘는 거대 학교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코로나19로 작동을 멈췄다"며 "국민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등교하거나 최대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법제화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총 10만 7420명이 동참하는 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코로나 완화…김재규 전남청장 현장 치안 분주

진도·해남 등 상황 점검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현장 치안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27일 해남경찰서를 방문,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청장은 앞서 광양(12일), 여수(13일)에 이어 26일에는 진도지역을 찾아 치안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치안 행정을 당부했었다.

김 전남청장은 이날 해남에서 지역사회 및 경찰행정 발전을 위해 협력한 단체장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뒤 직원들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찰 수사 구조개혁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또 해남 치안 1번지인 읍내지구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유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다음달 3~4일에는 고흥·보성 지역을 찾아 지역 치안 상황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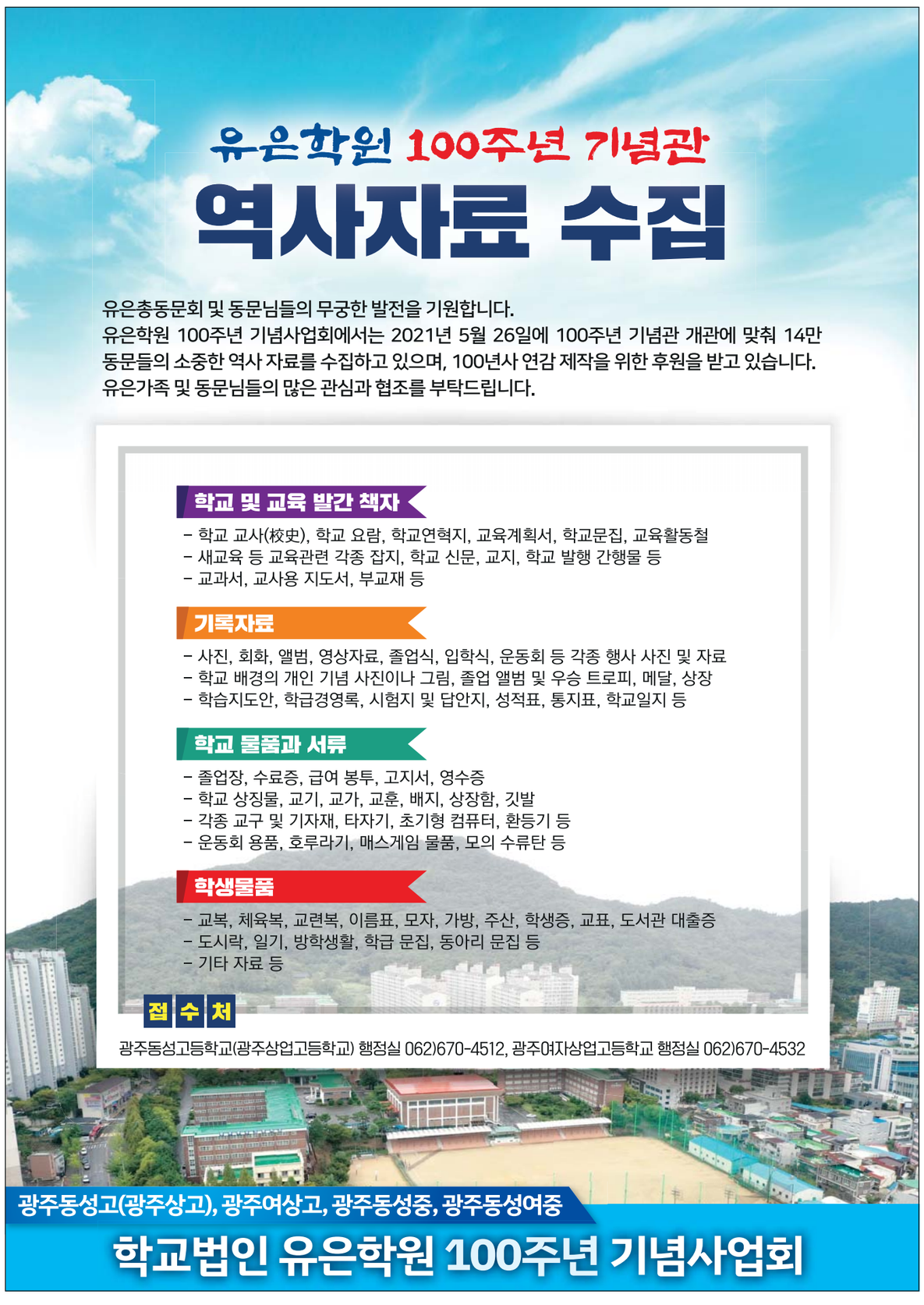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정·공감가는 인사

동구, 기준안 마련 TF팀 구성

광주시 동구가 공정하고 공감가는 인사운영 기준안을 마련한다.

27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2021년 인사운영 기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민선7기 전반기 인사운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TF팀은 노동조합을 비롯해 국별로 추천받은 인원으로 직급·직렬별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병호 기자 jusbh@